

보도	2025.8.12.(화) 조간	배포	2025.8.11.(월)
----	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감독총괄국 감독혁신조정팀	책임자	국 장	김충진	(02-3145-8300)
		담당자	팀 장	최범전	(02-3145-8310)

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 계획

- 금융지주·은행, 대형 금투·보험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 -

I. 추진 배경

- '24.7.3. 개정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지배구조법')이 시행됨에 따라 금년부터 책무구조도가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,
 - 그간 금융당국은 신설 제도가 원활하게 도입·운영될 수 있도록 각 업권별 도입 일정에 맞춰 ①준비 현황 점검, ②시범운영 실시 등을 통해 업계의 사전 준비를 체계적으로 관리·지원해 왔습니다.
- 한편, 금융감독원은 일선 현장에서도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책무구조도를 본격 시행중인 금융지주·은행, 대형 금융투자·보험회사에 대하여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.

< 책무구조도 도입 업권별·일정별 관리·지원 현황 및 계획 >

구 분	'24.上	'24.下	'25.上	'25.下(예정)
금융지주·은행 ('25.1.3. 시행)	①준비현황 점검	②시범운영 실시	-	③운영 실태 점검
대형 금투·보험 ('25.7.3. 시행)	-	①준비현황 점검	②시범운영 실시	

Ⅱ. 점검 계획

- ☑ 각 업권별 책무구조도 운영기간, 금융감독원 내 점검·검사 실적 및 계획 등을 감안하여 각 업권별 점검대상 및 점검항목, 일정 등을 차등화

1 금융지주 및 은행

- (점검 대상) '25.1.3. 책무구조도를 기도입한 지주 및 은행(62社) 중 은행검사국의 금년 정기검사 대상(18社)을 제외한 44社(지주 6社, 은행 15社, 외은지점 23社)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.

- (점검 항목) ①[대표이사]대표이사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의 이행 실태와 ②[이사회]내부통제위원회 등 이사회를 통한 내부통제 감독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합니다.

※ 상반기 중 은행검사국이 4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신탁담당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 실태에 대해 점검한 후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('25.7.4.)을 통해 점검 결과를 공유한 점을 감안하여 현업담당 임원은 금번 점검 항목에서 제외

- (점검 방법 및 일정) 업권(지주/은행)·규모(시중/지방/외은지점), 시범 운영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8개사*에 대해서 8.21일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,

* 지주 1개사, 시중은행 5개사, 지방은행 1개사, 외은지점 1개사

- 나머지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하여 서면점검을 실시('25.9월중)합니다.

2 대형 금융투자보험 회사

- (점검 대상) '25.7.3. 책무구조도를 기도입한 금융투자업자(37社) 및 보험 회사(30社) 중 일부 금투·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.

- **(점검 항목)** 대형 금투·보험의 경우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사전 컨설팅 시 주요 권고사항*의 충실한 반영 여부, 내규·시스템 등 내부통제 인프라의 구축 현황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.

* 책무의 중층적 배분으로 인한 책무의 중복 해소, 책무 관련 업무를 수행·감독하는 임원에 대한 책무 배분 누락 방지 등

- **(점검 방법 및 일정)** 업권(증권/운용/생보/손보), 규모(대형/중형) 등을 종합 감안하여 주요 금융투자업자, 보험회사에 대해 하반기 중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
Ⅲ. 향후 계획

- 책무구조도의 시행 이후 현업 임원이 내부통제를 본인의 업무와 책임으로 본격 인식하게 되는 등 점진적이고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고 있습니다.
 - 다만 현재까지는 각 업권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.
-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번 점검 결과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개선·보완을 권고하고 그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,
 - 권역별 내부통제 워크숍,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공통 미비점,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책무구조도가 현장에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.